



계성산우회보

제 38 호

- 발 행 인 : 김시우
- 편집국장 : 정인재
- 등반대장 : 류청웅
- 편집위원 : 김진걸
- 총 무 : 신대수

2007년 2월 23일(금)

교훈: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1

발행처:계성산우회보사 •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59-5 계성빌딩 811호 • 전화:(053)255-3900 FAX(053)256-4942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isung.or.kr

3월 정기산행은 부산 기장군 달음산(587.5m)에서



팔기산과 더불어 기장군의 2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히는 비교적 야트막한 산으로 지난 70년대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원동 천태산, 서창 대운산 등 부산 근교의 명산들과 함께 산꾼들이 가장 부담없이 즐겨 찾았던 고전적인 코스이다.

산꼭대기에 있는 닭벼슬과 같은 모양의 기암괴석이 수려한 자태로 동해에서 솟아 오르는 새벽 햇빛을 제일 먼저 맞는 기장군 제1경의 명산으로 꼽힌다.

남쪽으로는 해운대 장산을, 서쪽으로는 금정산, 천성산을 뱃으로 끼고 있어 정상에 오르면 거대한 기암괴석이 우뚝 솟아 있어 시원하게 탁트인 경관이 올라온 보람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또한 정상에는 주봉인 취봉을 비롯해 좌우의 문래봉과 옥녀봉 등 기암절벽

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50여 평의 반석이 있어 발 아래 펼쳐진 일광면을 비롯, 기장군 5개 읍·면과 해안선, 일망무제의 동해바다의 수평선이 그려지고 겨울산의 앙상한 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해맑은 바람과 더불어 동문들과의 담소, 생각만해도 가고픈 산이다.

설악산과 지리산의 등반을 짧게나마 느낄 수도 있는 아기자기한 산행이다. 산행시간이 비교적 짧아 하산 후 회와 곁들여 한잔 걸치는 동기들과 단합시간도 가질 예정이니 동문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산행코스는 다음과 같다.

좌전-광산마을-옥정사-옥녀봉-취봉-기도원-옥정사(총 소요시간 3시간 30여분)

<2007년분 기별 산우회비 납부안내>

산우회비는 각 기수별로 연간 10만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비는 산우회보 인쇄, 발송 및 산우회의 각종 행사시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아직 납부치 않았신 기수는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계좌 : 대구은행 247-07-000915-8 (예금주 : 신대수)

<제86차 정기산행 안내>

▶일 시 : 2007년 3월 4일(日) 08:00 (시간 지켜 주세요.)

▶장 소 : 모교 정문 ▶회 비 : 1만5천원(가족1만원)

▶준비물 : 도시락, 식수, 간식류, 겨울 등반의 기본 장비 (아이젠, 전등 마후라 외)

▶문 의 : 신대수(70회) H.P : 011-251-9613

九구침당 한의원

원장 김 동 섭 (52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2동 1196-4(동대구 우체국에서 강남약국 사이) TEL : (053)942-0128

◆진료시간◆

- 평 일 : 오전 9시~오후 7시
-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5시
- 공휴일 : 오전 9시~오후 3시
- 일요일 : 휴진

◆한방진료과목◆

- 내과 · 부인과 · 소아과 · 이비인후과
- 신경정신과 · 통증 클리닉

←철성교,철성시장 대구공고사거리→

현대치과 ● ●강남약국

구침당한의원

특별산행기

한라산의 하안 풍경화

이번 산행은 일찌기 백두산 천지 일주와 2005년말 울릉도 성인봉 일주에 이어 총동창 산우회의 기획 산행으로는 세 번째 참가한 셈이다. 앞서 산행에서 재미를 톡톡히 본 터라 일찍부터 가슴 설레면서 기다려온 산행이었다.

지난 1월 27일 오전 8시발 아시아나 여객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한지 1시간후 제주공항에 도착하고, 이어 중국 기예단 쇼가 펼쳐지는 매직월드에서 첫 관람을 하고 고등어집으로 점심을 포식을 하면서 모두들 기분 좋을 만치 적당히 취기가 돌았다.

용두암에 도착하자 그때 마침 하루 먼저 한라산 산행을 마치고 하산중인 총동창 산우회 신대수 총무로부터 전화가 왔다. 계속 내린 눈으로 어쩌면 내일 입산 금지가 될지 모른다는 어두운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했다. 어느덧 오후 비행기로 2진 그룹이 도착할 시간이 되어 버스는 공항으로 다시 향한다. 객지에서 재회를 하니 먼저 도착한 1진들이 모두 기립하여 큰 박수로 맞이하였다.

내일 본 게임을 위한 예행코스인 어리목으로 향하니 올라가는 중턱부터 눈이 쏟아진다. 시내에는 눈 한점 없더니 산에만 가면 이토록 눈이 오나보다. 1169m 고지 어리목-어승생 왕복 코스로 향하는 숲속은 소리없이 내리는 눈으로 평화롭기 그지없다. 등산로를 따라 머리위에 흠뻑 눈을 맞으며 설경을 즐겼다. 공기는 부드럽고 무척 멀리 와 있는 듯한 원시 모르게 홀가분한 느낌이 들고 마음도 산뜻하였다.

호텔에서 짐을 풀고 내일 산행을 위하여 꼭 쉬어야겠지만 이대로 객지에서의 긴밤을 흔적없이 보내기가 아쉬웠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까. 저녁8시경 신제주시장에서 삼삼오오 모여 소라,홍삼,방어회와 한라소주로 제주에서의 즐거운 첫날밤을 보냈다.

다음날 드디어 한라산 등반의 날이 밝았다. 이 얼마나 버드러운 오늘이었던가! 점심 도시락과 음료수 한병씩을 배낭에 넣고 어둑한 새벽에 성판악 휴게소로 향하였다.

버스 안은 군장검사를 기다리는 사병들처럼 모두들 스캐치 착용, 아이젠 점검 등으로 부산했다. 기대반 두려움반, 그러나 모두들 들떠있는 모습이었다. 그렇다. 우리는 겨울 한라산의 백록담 정복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일반 코스인 성판악에 도착하니 8시 20분. 청량한 아침기운은 자연을 바라보는 눈을 마음으로 깨끗하게 해주었다. 이



▲ 관음사 하산길에서 포즈를 취한 필자.

미 주차장과 산 입구는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젊음으로 충만하였다. 길바닥은 눈이 쌓여 처음부터 아이젠을 등산화에 묶었다.

매표소에서 백록담까지는 9.8km. 관리사무소에서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체력에 맞게 산행하라며 오전 12시까지 진달래 산장에 도착하여야 정상에 갈수 있다”면서 계속 안내방송이 나온다.

진달래 산장까지의 거리는 7.3km. 심호흡을 크게 하고 등산로를 접어들자 눈 밟는 느낌이 좋았고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다. 들성들성 놓여있는 나무계단을 밟고 평지같은 숲길로 빨려 들어갔다. 그늘진 눈썰미 보드라운 솜이불을 깔고 산등을 뒤덮고 있었다. 눈이 너무 많아서 닦아놓은 등산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몸이 푹 빠져서 나오기 힘들 정도였고 등산용 지팡이로 눌러보니 쑥 들어가 신기했다. 그래도 좁지않고 바람도 별로 없어서 편안하게 발걸음을 내딛는다. 우선 손과 얼굴이 시리지 않았으나 눈이 두껍기 때문에 한걸음 한걸음이 만만치 않았다. 길은 무척 완만해서 산속의 경치를 즐기며 천천히 걷기에 좋았다. 깊고 큰 산답게 나무들도 무척 크고 눈이 쌓인 모습은 환상적이었다. 크게 뭉쳐서 푹 떨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등산객들은 그야말로 열심히 올라가는데 눈속의 좁은 길을 줄지어 오르는 우리 계성 산우회원들의 모습은 차라리 엄숙하였다. 숲소리조차 눈속에 흡수 되는듯 천지가 고요하고 하늘에는 많은 눈이 소리없이 내

리고 있다.

길엔 250m마다 안내판이 있어서 얼마만큼 왔고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금방 알 수 있게 해놓았다.

계속 땀이 흐르고 눈은 점점 많아져서 더 푹푹 빠지고 온통 눈으로 가득한 나무들과 눈의 무게 때문에 꺾 부러진 나무도 꽤 있었다. 나무가 울창한 곳은 약간 컴컴하고 눈만 가득해서 더 꼼꼼하게 걷기도 했다. 힘들게 그러나 즐기며 천천히 오르니 ‘사라악 대피소’란 조그만 집이 나타났는데 지붕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마치 동굴처럼 파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힘내라” 그렇게 써놓았다. 재미있었다. 또 누군가가 돌하르방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놓아 그 옆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한 표정이며 즐거워 보였다. 여러 군데를 지나 도착한 진달래 대피소는 아주 편편하게 넓고 지금은 두터운 겨울옷을 입었지만 밝고 가벼운 봄옷으로 치장하며 무리지어 피어날 진흥의 진달래 군락지가 눈에 선하다. 성판악 매표소의 고도는 해발 700m인데 해발1700m의 진달래 대피소산장이니 길은 가파르진 않지만 계속 비스듬히 오르막이었다

아름다운 설경에 탄성을 지르고 지팡이로 나뭇가지를 톡 건드려 눈을 떨기도 하며 그러기를 두시간여 정상 가까이 갈수록 눈바람이 세차게 불고 기상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도에서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사람은 없었고 모두가 정

상을 향하여 올라갔다. 정상 가까이 길은 이전까지의 등산로와는 사뭇 다르게 경사가 급하고 좁기만 했다. 눈바람도 더욱 거셌다.

드디어 한라산 백록담 1950m에 다다랐다. 시간은 정오를 지나12시 20분경. 회색하늘과 온통 눈천지의 한라산. 그러나 백록담 아래서 불어오는 세찬 눈바람 때문에 아래를 쳐다보기도 힘들었고 사진찍기조차 불가능할 정도였다. 하지만 정상은 눈으로 뒤덮여 희고 깨끗했다.

모두들 정상 정복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다. 20분가량 머문 후 관음사 방향으로 하산하기 시작하였는데 땀이 식기 시작하고 불어오는 칼바람에 온몸에 한기가 풀려온다. 더욱이 내려가는 길은 급한 경사가로 길게 이어져서 많은 등산객들이 줄을 지어 대기하며 지체하는 시간이 길었다.

긴장이 풀어져서일까 내려가는 길은 멀고도 지루하였다. 다만 마음의 여유와 함께 천천히 주위의 경치를 구경하면서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전할 수 없어서인지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사진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을 갈구하는 사람에게 더욱 아름답게 보여준다. 아름다움이란 알고 빠져 들어갈 때가 더 아름다움에 매혹되기 마련이다.

기도하듯 소원하며 올랐던 나는 아쉬움에 몇 번인가 뒤돌아 보았다. 설원에 묻힌 한라산은 여전히 평온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이윽고 관음사 휴게소에 도달하니 오후 3시50분. 정상을 향해 출발한지 7시간여만에 도착한 셈이니 꽤 빠른 걸음으로 내려온 셈이다. 몸은 다소 지쳐있으나 머리는 맑고 개운했다. 마치 무슨 큰 일이나 한것처럼 모두들 서로 축하하며 성취감을 나누었다. 휴게소 매점에서 먼저 온 선후배님들과 어울려 조깅테기슬과 오뎅으로 목을 축이며 오늘의 산행 피로와 성공적인 등정을 기념하였다.

다음날 제주 서부권 일원을 관광하면서 바라본 한라산은 청명한 하늘 아래 왕관처럼 봉우리를 펼치며 아름다움을 눈부시게 연출하고 있었다. 이곳 한라산이 있는 제주를 남색 바다와 하얀 구름, 그리고 푸른 하늘이 어우러지는 바로 천상의 세계였다.

우리들의 2007년 한라산 겨울산행은 2박 3일 동안 선후배간 끈끈한 정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끝맺게 되었다.

글·유진(61회·산우회 부회장)



HOTEL AIRPORT

호텔에어포트

<http://www.htlair.com>

■ 넓은 주차장, 품격있는 결혼식, 돌잔치, 회갑연, 기타행사
■ 웨딩, 연회 예약문의 : 053)260-0306~7

대표 서은수 (55회)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400-1(대구국제공항 내) / TEL : (053) 260-0001

산행기

좋아서, 닦고 싶어서, 그리고 일상의 마음을 비우려고 오르는 그 산...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단함을 느끼는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마음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이라.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 자신에게 다짐한다. 오늘 하루는 남을 위해 조그만 수고라도 함으로써 나 자신에게 충실하고 나와 이웃에게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하자고...

새벽에 일어나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이 포근한 날씨다. 배낭을 꾸리고 밀어내기 환한 하고 세수하고 식사하고 부리나케 학교에 도착하였건만 오늘도 정각 8시다. 버스 앞에서는 늘상 그러하듯이 60회 산우회 회장님과 총무님이 웃는 얼굴로 속속 도착하는 친구들을 맞이하고 있다.

동기 14명을 포함하여 93명의 대식구가 버스 2대에 분승하여 산행기점인 영주 삼거리에 10시 25분경 도착하였다. 가볍게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하고 정인재 편집국장님의 지휘로 목청껏 교가를 부른 후, 봄부터 가을까지는 천상의 화원이며 겨울에는 흰눈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소백산에 첫발을 들여 놓는다.

약 40분을 올라가니 비로사(毘盧寺) 입구에서 시멘트 길이 끝나고, 오늘 등산의 주봉인 비로봉을 향해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된다. 날씨가 겨울 같지 않게 따뜻하여 끼입은 옷을 한결두껍 벗으면서 오르는데 눈이 녹아 질척거리는 길이 모교 교가에 나오는 비슬산의 어느해 봄 산행을 생각나게 한다.

친구들의 산행 모습을 디카에 담기 위해 등산 행렬의 앞뒤로 몇 차례 왔다갔다 하다보니 땀이 비 오듯 한다. 언제나 변함없이 산행 촬영을 하시는 52회 정하룡 선배님의 노고가 새삼스럽다.

해발 천미터를 넘어서자 비로소 광대한 소백의 설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정상까지의 길은 그리 가파르지는 않으면서도 만만하지 않은 그야말로 적당히 힘든 코스이다.

해발 1,439.5m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2월초의 비로봉은 여느 때와는 달리 산들바람이 마치 시원한 봄날이다. 평퍼짐하게 펼쳐진 설원과 그리 가파르지 않은 산세(山勢)는 어머니의 인자한 자태를 닮아서 온화하고, 오늘따라 살랑거리는 바람마저 애인의 상냥한 미소마냥 싱그럽다.

오후 2시경에 정상 가까이에 위치한 대피소 뒤 야외의 눈밭에 둘러앉아서 때늦은 점심을 든다. 마파람에 게는 감추듯 도시락을 똑딱 해치우고 정상주 한잔을 하고나니 왕후장상이 부럽지 않다.

하산길을 출발하려는데 뒤에 처진 친구 한명이 이제 비로봉을 오르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 '내가 돌아가서 같이 와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등산귀신인 이인직 교수가 선뜻 자기가 다시 비로봉으로 가서 동행해 오겠다고 한다. 내 몸이 편한 것은 남이 그만큼 수고한 덕분이요,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 이웃이 그만큼 편해진다는데, 선뜻 나서주는 이 교수가



▲ 눈부시게 빛나는 눈밭 위에서의 필자.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멍청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하산길은 서쪽으로 면해 있어 계속 눈길이다. 아이젠을 착용했지만 미끄러워서 주위의 풍광을 살필 겨를이 없다. 사이사이 친구들의 하산모습과 기념물들을 디카에 담으면서 내려오다 보니 어느덧 종착지인 단양 천동리 소재 소백산 북부사무소가 나타난다.(오후 4시30분)

벽난로 옆에서 하산주 잔을

앞에 놓고 친구들과끼리 혹은 선후 배간에 두런두런 담소를 나누는 식당내의 풍경이 펍이나 평온하고 목가적이다. 야외주차장 한편에서는 부지런한 김수동 사무관이 어느새 라면을 끓여놓고 소주잔을 권한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60회 박영태 산우회 회장의 배려로 주석과 노래방이 마련되어 오늘 산행의 즐거움을 더하였다.

산이 좋아 산을 오르는 사람

들...

산을 닦고 싶어 산을 오르는 사람들...

산을 오르면서 산을 닦아가는 사람들...

어느덧 친구들도 산을 닦아가는지 그저 아낌없이 주려고만 한다.

나는 오늘 마음을 비웠는가?

나는 오늘 아낌없이 주었는가?

글 · 신 역(60회)

집행부 소식

❖ 산우회 편집위원들은 2월8일, 동창회 사무실에서 산우회보 편집회의를 가졌다.

❖ 산우회보 발행과 관련하여 산행기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부에서는 향후 산행기를 포함한 본지의 모든 기사에 대해 간단한 산행용 선물을 하기로 하였다.

❖ 정기산행시의 회비는 47회까지는

면제이며, 그 외 집행부를 비롯한 전원이 납입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기별 동정

◆ 제51회

1월 25일 19명의 회원이 문경 사불산을 다녀왔다.

2월 25일 울진 벽암산에서 시산제를 지낼 예정이다.

◆ 제52회

2월 25일 동구 각산동에 있는 초래봉으로 산행예정이다.

◆ 제55회

2월 11일 경주 토함산에서 40명(부부동반)의 회원이 산행을 한 후 시산제를 지냈다.

대구로 돌아오는 길에 골굴사와 감포문무대왕릉을 관광한 후 횃집에서 회식도 가졌다.

3월 11일 단양 제비봉으로 산행할 예정이다.

◆ 제63회

2월 25일 가장 최정산에서 시산제를 지낼 예정이다.

◆ 제65회

2월 25일 김천 대덕산으로 산행할 예정이다.

3월 1일 서대구 주유소 2층에 동기회 사무실겸 기우회 사무실 개소식을 할 예정이다.

◆ 제67회

2월 11일 거창 거망산에서 18명(부부동반)의 회원이 눈꽃 산행을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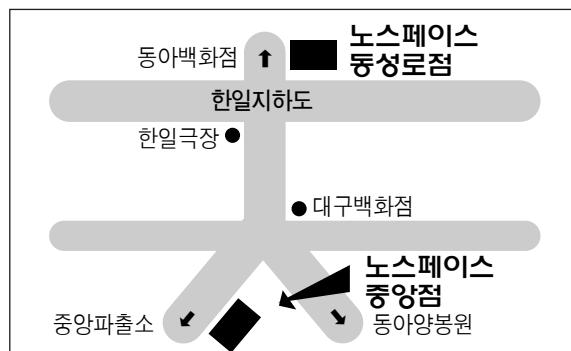
등산장비 전문점-

노스페이스 중앙점

대표 조 홍 채 (64회)

H.P. 017-504-2277

계성산우회원 특별대우!!



- 중 양 점 : 대구시 중구 동성로 2가 150-16 (대백⇄중앙파출소) / Tel. (053)255-5511
- 동성로점 : 대구시 중구 동성로 2가 40-10 (한일극장 건너편) / Tel. (053)421-4433 Fax.424-7361
- 구 미 점 : 구미시 원평2동 1008-33 (구미 국민은행 건너편) / Tel. (054)456-6900~1

2월 정기산행 93명이 참석 영주 소백산에서 열려...

2007년도 계성총동창회 2월 정기산행은 93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기 소재 소백산(1,439m) 초입 삼가동에서 시작되었다.

이날은 겨울의 끝을 알리는 입춘이어서 그런지 봄날처럼 포근한 날씨에 준비운동과 교가제창, 그리고 국립공원에서 지켜야 할 수칙 특히 담배피우다 적발되면 50만원 벌금이 있다는 등반대장님과 총무의 주의사항을 들은 후 10시 30분쯤 출발하여 비로사로 향한다.

가는 도중 모두가 더운지 연신 땀을 흘리며 몇몇 동문들은 배낭을 풀고 옷을 갈아 입는다.

소백산의 칼바람 소문을 들은 탓인지 모두가 중무장을 한 탓에 배낭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 보이는데 정상에 오르는 길은 눈이 녹아 질퍽한 길이 그리 순탄하지 않은 않았다. 우리가 우려했던 소백산 특유의 강한 바람은 불지 않았고 정상은 각지에서 온 등산객으로 시장터를 방불케 한다.

각자 정상을 알리는 비로봉 비석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후 삼삼오오 짝을 지어 대부분 정상 주변에서 식사를 마치고 하산을 하였는데, 천동리까지 하산하는 길은 군데군데 얼어있어서 모두가 아이젠을 착용하고, 내려오는 길이 참으로 지루하고 멀게만 느껴졌으리라.

대부분 천동리 주막집에서 시원한 냉막걸리와 동동주로 목을 축였고, 산을 오르

다 도중 하산한 52회 선배님을 태우기 위해 1호차는 먼저 출발하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55회 선배님을 태우고 2호차는 6시경 대구를 향했다. 오는 도중 60회 박영태 부회장께서 찬조한 술과 안주로 돌아오는 시간은 모두가 어느 때보다 유쾌하고 즐거웠던 것 같다.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48회 : 류정웅 ▷49회 : 최 준, 노 군, 이종호 ▷50회 : 김일득, 김종수 ▷51회 : 황성길, 허종철, 김명숙, 장무웅, 박재봉, 백학조, 권영호 부부 ▷52회 : 김시우, 서정환, 문진철, 정하룡, 최상철 부부, 송방호, 양병일, 김신웅, 김정웅, 신개식, 김재태, 서창국 ▷54회 : 우진권 ▷55회 : 이종열, 서상택, 정인재 ▷60회 : 김수동, 김인중 부부, 김영호, 박영태, 서해동, 신 역, 윤재호 부부, 이인직, 이정우, 주이광, 최명호, 진동현 ▷61회 : 유 진, 석재호, 이승엽 부부, 신문탁 ▷62회 : 방인철, 우경수, 권호춘, 임정래, 김태웅 부부 ▷63회 : 이일우 부부, 이진호 부부, 이태훈 부부, 고수한 부부, 장종국, 이 탁, 김형국, 김재룡, 이상준 ▷65회 : 오상달, 윤상일, 김종태, 김진걸 ▷67회 : 송준석, 장동식, 박종후 ▷69회 : 김도균, 우종식 부부 ▷70회 : 박준석, 이현석, 장대욱, 서태호, 신대수 ▷71회 : 박용상, 이응보, 장동현, 정만현, 추쌍엽, 차봉준, 석준수(이상 93명)

글 · 김진걸 (65회 · 편집위원)

산우회 탐방 | 계성 65회 산우회

참으로 놀라운 산우회의 위상과 발전

총동창회에서 주최하는 98년 팔공산 등반대회 참석 후 당시 참석했던 몇몇 동문들이 부족했던 등반지식과 각자의 건강을 위해 산우회를 만들자고 협의하였고, 초대회장에 김상운 동문이, 총무는 최인기 동문이 맡아 몇몇 뜻있는 친구들과 주변 가까운 산에 매월 1회 정도 오르기로 하였으나, 최인기 총무의 허리부상으로 사실상 산우회의 모임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가 2003년도 Home Commingday 이후 기별 집행부의 축우회, 테니스회, 골프회, 산우회, 기우회, 반창회 등 소모임의 활성화 노력으로 인해 계성 65회 산우회는 오상달 현 산우회장이 맡기로하고 총무는 정삼영 동기가 맡게 되었으며 김명구 동기가 고문이 되어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때도 전 동기를 대상으로한 산우회라기보다 몇몇 65회 동기들의 친목산행모임의 성격이 강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첫이사회 모임을 대덕산 등반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등반 후 모인 40명의 동기회 이사들의 협조와 집행부에서 오상달 산우회장에게 금일봉을 전달하며 독려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오상달 회장은 매달 3째주 일요일을 정기산행으로 정하고 동기들의 산행을 위해 노력을 해왔으나 정삼영 총무의 부상과 매달 행선지 결정의 어려움과 저조한 동기들의 참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2005년 가을 65회 오상달 산우회 회장의 회사를 탐방한 총동창 산우회 집행부와 식사하는 자리에 김진걸(65회 총무. 현 총동창 산우회 편집위원)이 함께하여 매월 첫째주 총동창 산우회 산행에 기수참여를 약속하고 그때부터 오상달 회장과 협조하여 전 동기를 대상으로 산우회 활성화를 위

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당시 동기회의 정재원 회장과 총무단들의 지원, 특히 전임회장을 역임한 강북정형외과의 권경훈 원장의 차량 지원으로 2006년 가을 가야산 산행시 30명의 동기들이 참석하였고, 김종태 동기를 부회장에, 정삼영 동기를 총무로, 남시홍 동기의 부인인 한행지 여사를 여성 총무에 임명하여 그 이후 팔공산, 운달산, 덕유산, 주흘산 등 매번 산행시마다 20명 이상의 동기가 참석하는 산우회가 되었다.

사실 지금의 산우회가 있기까지 처음부터 노력한 오상달 회장과, 정삼영 총무, 특히 등반대장을 맡아 차량, 코스 지정 및 안내 등 모든일을 도맡아 하는 홍동석 등반대장, 부회장을 맡아 모임시마다 혼자 전체 식사비를 계산해버리는 김종태 부회장, 바쁜 남편(경상북도 농구협회 전무이사)을 대신해서 남성 총무들을 무색하게 하며 특히 시산제 음식준비를 혼자 도맡아하신 한행지 여성 총무님 등등 많은 분의 수고와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동기들의 노력과 특히 2007년도 집행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낸 서태고 동기(총동창회 산우회 부회장)의 역할도 크게 빛을 발했던 것 같다.

이러한 동기들의 노력으로 65회 산우회는 2007년도 시산제를 지난 1월 21일 앞산(대덕산) 등반 후 체육공원에서 40명의 동문과 부인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하였고, 현 동기회 구자일 회장(구병원 원장) 및 이승화 고문(동방플랜텍 대표), 권경훈 고문(강북정형외과 원장), 김명구 고문(경동목재 대표) 등이 거금을 찬조하였고 이날 참석한 동기들이 낸 기금은 600만원을 육박하였으니 65회 산우회의 위상과 발전은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

글 · 김진걸 (65회 · 편집위원)



▲ 소백산 비로봉을 오르기전 65회 오상달 산우회장의 멋진 모습.



▲ 2006년 12월 주흘산 조령 1관문 앞에서.

발 축 전

계성 총동창산우회 제5대 회장단 출범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계성 65회 산우회원 일동

회장 오 상 달 / 부회장 김 종 태 / 총무 정 삼 영, 한 행 지 / 등반대장 홍 동 석